

북스

어린이 책꽂이



▲말해봐, 바틀비! =그림책 'Only You'를 쓴 동화작가 로빈 크루즈와 '도서관에 간 사자'를 그린 그림작가 케빈 호크스가 쓰고 그린 신작 동화. 네 살이 다 되어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아이 바틀비를 주인공으로 말하는 것보다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웅진주니어·9천500원>



▲보물상자=여섯 살이라고 우기는 다섯 살짜리 동생과 여덟 살 형이 벌이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연작으로 그렸다. 7~8세 대상 '세계질 웃는 코끼리' 시리즈로 다른 작가들의 '학교 가는 길을 개척할 거야', '달을 마셨어요', '어름이와 가을이'도 함께 나왔다. <사계절·7천원>



▲카르카와 인형의 여행=스페인 작가 조르디 시에라 이 파브라의 동화. 프란츠 카프카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인형을 잃어버려 우는 아이 엘시를 달래려 "인형은 사라진 게 아니라 여행을 떠난 것"이라며 3주 동안 인형의 여행 이야기를 이어나갔다는 실화를 재구성했다. <문학과학지성사·8천500원>



▲우리 옆집에 요정이 산다=뉴베리 아너상을 수상하고 미국도서관협회 주목할만한 어린이 책으로 선정된 제니 테일러 라일의 최근작이다. 요정을 등장시킨 환상적인 이야기속에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너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오늘의 세태를 꼬집었다. <드인들·9천원>



▲난 용돈이 필요해=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틱을 통해 돈의 가치, 경제관념을 알려준다. 새로 산 스케이트보드를 도둑맞고 다시 사려고 하지만 틱의 손엔 돈이 없다. 요리조리 궁리 끝에 틱은 용돈 벌기 작전, 방학동안 세차 아르바이트에 돌입하는데..... <국민서관·8천원>



▲엄마가 고마워=엄마 아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헛살과 같은 존재인 아이의 탄생으로 행복해 하는 엄마의 모습을 담은 그림동화 책. 엄마는 아이의 덕분에 더 행복한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 같으며 "사랑하는 내 딸, 엄마가 고마워"라고 말한다. <예꿈·9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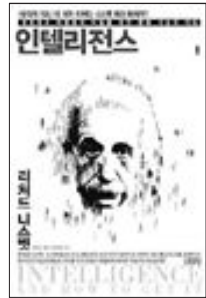
▲꿈을 찾아주세요=어른들은 왜 우리를 위한 다면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키 귀울이지 않을까요? 들어도 무시하기 일쑤고요. 어른들에게 바라는 아이들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동화다. 어른들로 인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은 맘을 조금이라도 먹은 아이들에게 응기를 갖게 해준다. <그린·북·9천원>

▲개구쟁이 아빠= '은누리 꼬마도서관' 시리즈의 첫 번째 그림책으로 '호호 할머니 시리즈'로 유명한 일본작가 사토 와키코의 작품이다. 주말이면 잠만 자는 아빠는 같이 놀자는 아이의 등쌀에 마지못해 놀이터에 간다. 놀이터에서도 졸던 아빠는 어느새 장난꾸러기 어린이 애가 돼 있다. <장수하늘소·1만원>

지능은 유전이 아니라 교육으로 높일 수 있다

인텔리전스 ...

리처드 니스벳 지음



소속이 다른 지능도 차이가 날까? 가정환경, 교육수준이 지능을 결정하는가?

전작 '생각의 지도'에서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 방식 차이는 유전이 아니라 문화에서 비롯했다고 풀이했던 리처드 니스벳(미국 미시간대 심리학과 석좌교수)는 신작 '인텔리전스-평범함과 비범함의 비밀을 밝힌 문화 지능의 지도'에서도 여전히 환경과 문화가 사람을 바꾼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이번 책의 연구 주제는 '지능'(Intelligence).

따라서 저자는 "지능은 유전되는 게 아니라 교육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니스벳 교수는 인종이나 계층에 따라 지능지수(IQ)가 눈에 띄게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끌어다 쓴다.

저자는 "요즘 아이들이 100년 전 아이들보다 IQ가 30점 정도 높아진 이유는 지능이 높아진 게 아니라 학교에서 IQ 점수를 높일 만한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부자집 아이들이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IQ가 높고, 오랜 세월 미국의 흑인들이 백인들보다 평균 IQ가 낮은 것은 교육환경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IQ 테스트는 근본적으로 교육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도록 설계된 검사법임을 폭로한다.

저자는 또 동양인 출신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백인 급우들보다 높은 성적을 내는 이유도 동기와 노력으로 설명한다. 동양인 청소년들은 공부해야

만능의 의미가 대단하고 가족과 집단의 유대감을 중시하는 점 때문에 노력과 끈기를 더 발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인종과 지능의 생물학적 기원을 밝힌 '벨 곡선'(the bell curve) 등 기존의 지능 연구들의 오류를 바로잡고, 심리학, 유전학, 신경과학의 최신 데이터들을 분석해 문화가 우리의 지능과 잠재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을 밝혀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지능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 이를 바탕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유전자 코드가 아닌, 문화, 학교, 사회적 환경과 같은 요인들이 미래의 지적 진보를 위한 열쇠라는 점을 역설한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인간이 어떻게 사는 이유는 뇌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라거나 "유전자 인생을 결정한다"는 진화심리학과 뇌과학이 주목받는 요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신선하다.



저자 리처드 니스벳교수는 지능은 사회·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문화, 학교, 사회적 환경과 같은 요인들이 미래의 지적 진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유전자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주장보다 훨씬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기도 하다. 환경이 문제라면 노력해서 바꾸면 되기 때문. 부모가 유아기에 얼마나 많은 낱말을 들려주느냐, 학교가 빈민층

청소년을 어떻게 이끄느냐, 정부가 공교육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원제 'Intelligence and How to Get it'. <김영사·1만1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보수에 갇혀있는 정치의식 경고

깨어있는 시민을 ... 박동천 지음



민주주의사회에서 정치평론가는 '잠자는 대중'을 자극하여 '깨어 있는 시민'으로 각성시키는 일을 임무로 삼는다.

진보적 정치평론가 박동천(전북대 정치학과 교수)씨가 이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저작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정치학 특강'을 내었다. 우선 저자는 한국사회 현실을 네 가지 프레임에 들어 비판한다. '가짜 문제'에 대해 언어적인 분풀이를 하는 '마녀사냥 프레임', 나약한 심성으로 권력에 의지하려는 '권력순배 프레임', 추종 대상을 절대시하는 '신경전염 프레임', 유년기부터 무비판적으로 주입된 민족주의가 만든 '집단지성 프레임'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본질적으로는 보수 정치의식을 구성하는 프레임인데, 저자는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이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관념적인 정치비평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정치문화의 성숙을 위한 전망과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참여정부 이후 진보진영이 세를 펼치지 못하고, 정부의 무리한 사업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원인은 한국사회에 광범한 정치의식의 보수성에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진보에 가장 큰 장애는 '사유형식의 피상성과 폐쇄성'이라며 정치의 체질 개선을 바라는 열망은 높아도 구체적인 물꼬가 트이지 않는 '답답증'의 원인으로 거기에 있다고 강조한다. <모티브북·2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의거 전후 하얼빈의 11일 여정

안중근 ... 원재훈 지음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1897~1910) 의사. 어린 시절 교과서나 위인전 같은 곳에서 그 이름을 자주 들었지만 진정으로 안중근 의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안중근 의사 순국(3월26일) 100년을 앞두고 1909년 10월22일 하얼빈 도착에서부터 11월1일 뤼순감옥 이송까지 안중근의 11일을 생생하게 추적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평전 '안중근, 하얼빈의 11일'이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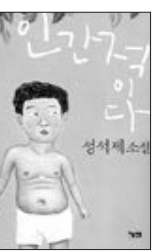
시인이자 소설가인 원재훈씨는 하얼빈과 뤼순 현장답사와 관련 자료 연구를 토대로 안중근의 11일간의 여정을 작가 특유의 상상력을 발휘해 소설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려는 일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하얼빈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안중근은 자신이 하려는 일의 당위성을 물었다. 그리고 평화주의자 안중근은 쓰러져 가던 조국과 동양평화를 위해 총을 들었다. 책은 안중근 자신과 일본제국주의, 나아가 동아시아의 운명을 뒤바꾼 11일간의 생생하게 재구성했다.

책은 또 일본의 근대화 과정과 조선 침략에서 이토가 차지하는 비중 등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서술하고 있으며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사계절·1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야기꾼 성석제의 맛갈스런 글

인간적이다 ... 성석제 지음



우리 시대 타고난 이야기꾼 성석제(50). 그의 글은 읽는 이의 마음을 행복하게 한다.

2년 만에 나온 소설집 '인간적이다' 역시 '성석제식' 특유의 재담과 재치 넘치는 문장으로 읽는 이를 한껏 풍요로운 이야기세계로 끌어낸다. 수록된 마흔 아홉 편 소설에는 그만의 익살, 기차, 반전, 풍자, 독특한 웃음의 세계가 펼쳐진다.

또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돌아가며 늘어놓은 '내가 겪은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은 것처럼 일상 속의 친근한 에피소드가 작가의 맛갈스런 글로 녹아들었다.

무료를 떨치려 방송인의 가시를 세는 사냥꾼과 까치가 집을 짓는데 필요한 나무가지수를 세는 사람들('출렁 사람'), 한겨울 밤 맨발로 눈길을 뚫고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도인들'), 그 누구도 경멸해보지 못한 단팻배를 짚은 사나이('짜아취우'), 노벨상에서 새로 환경상 부문이 만들어진다('삼과 벌독도 잘할 수 있는 일'), 모래먼지 속을 달리는 낙타와 물이꾼들의 도로(徒勞) 같이 보이는 요란한 질주('낙타 경주') 등

이야기에 등장하는 빈틈 많은 사람이나 정겨운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책 제목 그대로 '인간적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법하다. 수록 작들이 한바탕 웃음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웃음 끝에 정한 감동이나 명징한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 <하늘연못·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지매매
건물매매
맞춤주변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립니다.

사원 모집
당사는 부동산 중개, 분양, 경·공에 개발 전문회사로서 사세확장에 따라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유)코리아랜드
대표전화 959-1033, 010-7723-1033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